

## 한덕수 국무총리, 중미 6개국 외교차관 접견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1.8(수) 오전 엘살바도르, 벨리즈, 코스타리카, 도미니카공화국, 과테말라, 온두라스 6개국에서 방한\*한 중미 외교차관들을 접견하고 한-중미 관계, 분야별 협력,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
\* 「제3차 한-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」(11.8.) 및 「한-중미 통상투자 포럼」(11.9.) 참석을 위해 방한중

□ 한 총리는 한국과 중미 국가들간 오랜 기간동안의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한편, 북미-남미, 태평양-대서양을 잇는 교통·물류의 중심지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인 중미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자유, 평화,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.

\* 우리나라는 중남미 15개국(엘살바도르, 벨리즈, 코스타리카, 도미니카공화국, 온두라스 등)과 1962년 수교 / 벨리즈는 1987년 수교)

○ 아울러, 한-중미 FTA('21.3월 발효 / '23.9월 과테말라 한-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), 양자 개발협력 및 지역기구(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, 중미통합체제(SICA)) 등 제도적 협력 기반 확대를 통해 중미 지역 발전과 경제·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였다.

※ 중미통합체제(SICA) : 중미의 자유, 평화, 민주주의,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1991년 '테구시갈파 의정서'에 따라 출범한 지역통합기구 / 우리나라는 2012년 역외 옵서버 가입, 2022년 한-SICA 협력기금 재조성(150만불) 이래 ▲식량안보 ▲재난대응 ▲보건 의료 등 사업 시행중

□ 중미 외교 차관들은 최근 중미 국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, 인프라, 농업,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 활발한 협력이 진행 중임을 평가하며, 국별 맞춤형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길 희망하였다.

○ 한 총리는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,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내일 개최되는 '한-중미 통상투자 포럼'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,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중미 국가들의 지속가능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.

□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, 중미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면서, 부산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였다.

□ 중미 외교 차관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, 한 총리는 중미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박영철 (044-200-2136)
		담당자	사무관	박철순 (044-200-2135)

